

지역 소식통

'꿈나무 울타리'展 관람객 줄 이어

정읍시, 생활민방위 순회교육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

정읍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과 시민, 교직원 등 4600여명을 대상으로 신태인 고등학교 강당 등 26개소를 찾아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뇌졸중과 뇌출혈, 심장마비 등 각종 심혈관 질환에 따른 돌연사를 막기 위해 갑작스런 심정지 사고에 당황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시행 할 수 있는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을 갖는다 고 밝혔다.

교육은 교육용 인형과 심장 제세동기를 이용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시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수강 편의를 제공 보다 많은 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지 인근 학교 강당과 체육관을 순회하며 교육을 갖는다"며 "교육 신청 학교를 다 수용하지 못해 아쉬워 하반기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매 회 2시간씩 이루어진다. 희망자는 일정에 맞춰 현장에 나오면 무료로 수강 할 수 있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심폐 소생술 교육은 사망률이 높은 심 정지 사고에 시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연사를 막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립미술관, 가족사랑 기획전시전 내달 11일까지 진행

정읍시립미술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꿈나무 울타리'展(展)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지난 2일 미술관 뮤지엄 교육실에서 개막식을 갖고 6월 11일까지 가족사랑 기획전시전을 갖고 있다.

시립미술관에 따르면 개막식 이후 1일 평균 500여명, 11일 현재 모두 3000여명이 찾았다.

이번 전시전에서는 국내에서 분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22명의 작품 중 동심을 연상하게 하는 다채로운 작품 7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서양화와 한국화, 사진 등 평면작품과 다양하고 거대한 입체·설치 작품, 미디어·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감상하며 가족 간 사랑을 확인하고 화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다.

특히 삼대(三代)가 함께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돼 있다.

1전시실에서는 과거 모습을 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추억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고 2전시실에서는 동심



속 자연을 거닐고 느껴볼 수 있으며 3전시실과 야외전시장은 10초 전 과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느껴보고 동심으로 돌아가도록 작품 탐승과 사방지기 놀이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정읍시립미술관이 지난 3월 23일,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된 것을 기념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전시회인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 작품을 감상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립미술관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월요일은 휴관하며 교육과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립미술관(화예연구실, ☎063.539-64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오감만족 농촌체험학습 '호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오감만족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기술센터는 "농촌 체험 농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농촌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감만족 농촌 체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감만족 농촌 체험 학습은 학교 내 체험 수업 시 농촌현장을 찾아 단순한 제철 농산물의 수확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농업을 체험하며 농산물의 소중함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정읍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가 체험 농장과 협의하여 30인 이상의 학생과 교사가 참가가 가능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모두 25회에 걸쳐 운영된다.

체험 농장은 모두 8개소로 농촌진흥청 지정 농촌교육농장과 농촌 체험 교육농장이다.

농장별 체험프로그램을 보면 들꽃마당'은 야생화 정원과 식충식물의 이해, 진미유기농채널농장은 유기농 이해 및 포도 체험 '태인 양조장'은 누룩과 전통주 발효, '맑은샘자연교육농원'은 곤충 생태와 녹색 식생활의 이해이다.

기술센터는 "각 농장 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알찬 농촌체험활동 운영과 확대를 위해 정읍의 학생들이 정읍의 자연과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양식장 진·출입로 반사경 설치

고창군은 일몰이나 기상 악화 때 양식장에 진·출입하는 어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패류 양식어장 진·출입로에 반사경을 설치했다고 11일 전했다.

고창군은 천혜의 광활한 갯벌을 활용한 패류 양식업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바지락은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해 고창군 수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양식어장이 마을에서 수km 떨어져 있고 800ha의 너른 면적에 분포되어 있으며 고창 갯벌의 특성상 양식어장 진·출입 시 트랙터 등 장비 이용 하고 있으나 기상 악화 시에 진·출입로 시야확보의 어려움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마을 입구부터 양식장까지 약 10km 구간에 반사경 400개를 설치 완료했다.

하진어촌계 권영주 계장은 "양식장 진·출입로 반사경 설치로 어업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됐다"며 "어민들도 고창 패류양식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환경부 방문, 하수관거사업 정부예산 반영 건의

박우정 고창군수가 국정발전을 위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각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018년 국가 예산확보대상 사업 중 상하수도분야 4개 사업에 888억원의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11일 환경부 관련 실·과를 방문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박 군수는 이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각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면서 예산 반영에 심혈을 기울여 상하수도(99억)와 부안면 고진(50억)에 계획한 생활환경을 위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상수도 누수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도현대화사업(458억) 등은 국가재원 문제와 시·군간 경쟁이 치열

해 환경부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연일 관계부처를 찾아 누수문제로 인한 재정손실과 물 손실에 대한 고창군의 현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우정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현안 사업과 신규 및 계속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행보를 펼쳐왔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박 군수와 각 실과소의 총력적 행보를 통해 예산 확보 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꿈이 이루어지는 부안' 가이드 북 제작 배부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우리 지역으로 정착지를 선택하는 도시민들과 이미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가이드 북 '꿈이 이루어지는 부안'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이에 따라 군은 도시민들이 인생 2막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적인 내일의 삶을 꿈꾸는

희망찬 터전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단계적인 실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고 관심과 격려를 담아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부안의 장남으로 큰마리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드리

겠습니다"라는 부안군수의 말처럼 이 책에는 부안군의 현황을 시작으로 귀농준비책, 귀농귀촌전 체크리스트 각종 지원사업 정착사례, 월별 농작업정보, 임대 농기계활용, 텃밭 가꾸기 등 월려관 215페이지에 귀농귀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 신태인농협, 농업용 지게차 발대식 개최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류근백)은 농협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사업 농업용 지게차 부문에서 2017년도 시범농협으로 선정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11일 농업용 지게차 발대식을 개최했다.

급차 시범사업은 신태인 지역 농업인 13명이 참여하여 약 4억원에 상당하는 농업용 지게차를 임대하였으며, 참여 농업인은 "농업생산지가 매년 증가하고 농가소득은 감소되는 현실에서 농업용 지게차를 새 차로 구입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는데, 이번엔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임대한다는 말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 같이 농업용 지게차가 꼭 필요한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이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면서 시범사업이 아닌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신태인농협 류근백 조합장은 "농업인들이 10년 이상 된 중고 지게차를 구입해 농업용으로 이용하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용 지게차 부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농업인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농기계은행 본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업생산지 절감 및 농업인 실익제고를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남부안농협 나누미근농장학금 300만원 기탁

안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남부안농협 조합장실에서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남부안농협은 조합원의 학자금 부담경감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0년 동안 141명에게 총 1억 3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최우식 조합장은 "하나 된 마음으로

군민과 향우들이 참여해 교육자리를 실현하고 부안군의 장학사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부안군민으로서 매우 뿌듯하다"며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돼 주민을 위한 맞춤형 농정을 펼치고 있는 남부안농협도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에 앞장서서 동참하고자 한다"고 기탁배경을 설명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